

오늘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_ 누가복음 9장 48절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9 | 유유청청 겨울성경학교 | 11 | 목회칼럼 |
| 3 | 교회 소식 | 10 | 함글함글 신춘문예 특집 | 12 | 공동체 소식 |



겨울에도 자랍니다

올해 유난히 추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찬 바람을 막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차디찬 북극 바람이 출렁출렁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얼어붙은 얼음 아래에서도 새봄을 기다리는 싹이 움튼니다.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오래지 않아 큰 나무가 될 신앙의 아이들은 겨울 찬 바람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이의 질문으로 다시 생각하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를 일상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두 가지 기획을 연재합니다. 하나는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야기’입니다.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씁니다. 다른 하나는 “책 속의 명문장”입니다. 때로는 책 속의 한 구절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아이가 나의 신앙교사이다

아이가 태어났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내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니 잘 키우리라.

아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교육학 전공이 아닌 나는 전공 지식과 함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난 경험으로 아이들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학교선생님들이나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부러워졌다. 이럴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공을 교육분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이가 좀 더 자랐다. 이제는 글자도 혼자 읽고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계속 질문이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하겠지. 그래도 그 질문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역시 궁금한 것이 많다. 이번에도 물어본다. 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다. 나도 궁금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도 있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까지만 나오는데, 가인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거야? 그 사람들 만든 얘기는 왜 성경에 안 나와?”라는 질문이다. 이런 걸 궁금해 할 줄은 몰랐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천국가서 하나님께 여쭙봐.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꼭 천국가야겠다”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해본다. 정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내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다.

나도 어릴 때 참 많은 의문을 가졌다. 그래,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부모님께, 목사님께 질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다. 한동안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 믿음이 강해져서? 답을 찾아서? 아니다. 그때만큼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아이의 질문을 통해 다시 의문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궁금해졌다. 나에게 질문을 던진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때로는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신앙교사인 것을.



책 속의 명문장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이 답이다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이 답이다.
장한섭 지음, 한국NCD미디어, 2020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진다. 가치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 어른들의 인격과 문화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다. (19p)

교육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배우는 것이다. 교회 내의 제자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제자도를 길러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20p)

커넥터(Connector)로서의 교사는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자신이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고 안내해 줄 수 있다.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성장을 돕는 것이다. (23p)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 양육은 성경적 가정을 가꾸는 것 자체에서 출발한다. (28p)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 교사, 교회 어른들은 삶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교재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워야 한다. (33p)

하나님 나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단지 어떤 사람을 키우겠다는 것을 넘어, 어떤 사회를 꿈꾸게 할 것인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예수님께서 회복해가셨던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37p)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해왔다면, 새로운 다음세대교육은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가 얼마나 성숙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교육의 초점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게하느냐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로 옮겨간다. (47p)

성품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부모의 성품이 길러져야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교사가 있는 교육공간을 찾아야 한다. (123p)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가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131p)

아이들은 어른에게 삶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삶에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삶을 돕는 길이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133p)

교회 소식

2021년 봄학기 온라인 양육클래스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양육클래스가 시작된다. 성경(믿음 과정), 신앙(소망 과정), 사회(사랑 과정)으로 나뉘어 총 10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그중에서 하나의 강좌는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열릴 예정이다. 각 강좌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직접 수강신청하면 10주간 매주 주일 유튜브 주소를 전달받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로 드러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봄을 맞아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도 주 앞에서 활짝 꽃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함줄함울



**2021년 봄학기
온라인 양육클래스**
3.7(주일) ~ 5.15(토)

앵커바이블(Anchor Bible)-Q&A	이은석 목사	010.4417.9779
소선지서(아모스, 미가)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BTS(Bible, Too much Story)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중보기도	황바울 목사 (3/28 개강)	010.3657.0421
다시, 예배를 꿈꾸다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성경 속 기도이야기 II(신약편)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주기도문 강해	윤경수 목사	(ZOOM 실시간 강연, 토 오전 10시~11시, 30명 선착순) 010.8882.5503
Hymnology 101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8개 찬송가 원문 가사 살펴보기)	이진희 목사	010.9407.3709
기독교 교양(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허 준 목사	010.5450.5308
이단(異端)열차기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 신청기간 2.21(주일) ~ 3.7(주일)
- 신청방법 각 강좌 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신청
- 문의 방순희 권사(010-3622-1368)

교회 소식

주님의교회 도서서점부 30% 세일

2월 21일(주일)과 28일(주일)에 월만한물가에서 도서서점부의 성경, 서적, 팬시 문구 등 전 품목을 30% 할인하여 판매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재고를 판매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품업체를 돕고자 시행하는 세일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함줄함울

전품목 (성경, 신앙서적, 팬시문구 등)

30% SALE

일시 2/21, 2/28 (주일) 오전 8시 ~ 오후 2시
장소 월만한 물가

섬김과 나눔 소식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 지원



(사)섬김과나눔에서는 2020년 12월 24일 코로나19로 긴급귀국한 선교사를 위로하고, 다시 사역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한국에서의 거주 시간동안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교사 생활비를 긴급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귀국한 선교사 20가정으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자녀 2명 이상 가정이며 치료목적으로 긴급 귀국한 선교사이며, 총 예산은 1천만원이다.

함줄함울

섬김과나눔 소식

무의탁 생활지원 봉사 시작



(사)섬김과나눔에서는 2021년 2월 8일(월)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 봉사를 시작하였다. 설날을 맞아 따끈한 사골국물에 가래떡과 구운 김, 죽과 모듬 전 등을 담은 선물을 84분께 나누어 드렸다. 김화수 담임목사와 사모, 그리고 섬김과나눔 담당 이대혁 목사와 봉사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만드느라고 수고를 하였다. 김화수 담임목사 기도 후에 마친 1.2구역과 거여동 3팀으로 나뉘어서 2인 1조를 선물을 나눠 드렸다. 봉사자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선물을 전하며 발길 발길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다.

무의탁 독거 어르신 생활 지원은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11-12시에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위기환경에 놓인 무의탁(독거, 무연고)어르신 가정에 식품(죽, 반찬 등) 및 생필품을 제공하며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의료비를 신청자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일시 지원한다.

섬김과나눔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불우한 지역주민에게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할 봉사자들을 구하고 있다.

함줄함울

만나만나데이!

포근하던 2월 6일 토요일, 유아숲 가족들이 “만나만나 Day!”로 모였습니다. 무더운 작년 여름, 성경학교로 만난 이후 약 7개월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곧 다가올 사순절에 가정교회에서 활동할 ‘사순절 말씀 컬러링북’과 ‘나는 예배자입니다’예배키트가 배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진 채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주님의교회’이며, 우리 모두가 ‘예배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글함글



1월 달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유치부 친구들을 교회에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번 만나만나데이에서 예배키트를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똑같은 러너와 헌금주머니를 앞에 두고 고사리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보니 천사같았습니다. 이번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을 반겨주신 우리 주님의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원선 집사 / 담쟁이 유치부 7세 박유민 어머니



매일 자기 전 기도를 해주면 아멘이라고 따라하는 다희에게 주일학교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가로막히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통해 우리 교회 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체도 은혜였고 또 아직 어리지만 정성껏 준비해주신 키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드라이브스루 기회가 있다면 방역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셔야겠지만 잠깐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에 성도 / 하늘씨앗 영아부 이다희 어머니



도연이가 비록 잠자고 있었지만 교회에 내딛는 첫 걸음, 전도사님들 뵈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쁜 모습으로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해주신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희 집사 / 하늘씨앗 영아부 김도연 외할머니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들을 뵈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주일마다 만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아린 집사 / 싹트네 유아부 고연재, 하늘씨앗 영아부 고연아 어머니

하울이의 생애 처음 교회 방문, 두근두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처럼 풍성한 사역자분들의 섬김에 마음 한켠이 가득찬
느낌. 하울이의 삶도 오늘과 같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길 기도하
입니다!

정유선 집사 / 하임 아기부 서하울 어머니



“맙소사!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잠들다니! 태어나 화면으로만
만나던 전도사님도 못 만나고! 다음 기회에는 기필코 잠들지 않을
테다!” 윤이가 잠들어 전도사님들 못 만나뵈고 온 게 너무 아쉬웠
어요~ 비록 자면서 교회를 다녀왔지만 그래도 행복한 낮잠 드라이
브스루 교회 나들이였습니다! !^^*

임사라 성도 / 하늘씨앗 영아부 하윤 어머니



코로나19로 주일예배를 집에서 드리니 눕거나 엎드리는 모습에 예
배 시간을 구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예배 키트를 준비하니
어린이이지만 평소의 시간과는 구별되어 마음을 갖추어 예배를 드
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반겨주시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신 전도사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자칫 타태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
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힘써 주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련 속에서도
신앙과 함께 쑥쑥 커 갈 것을 믿습니다. ^^

안희선 성도 / 싹트네 유아부 김은혁 어머니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살랑 부는 날. 예배 키트를 받기 위해 교회에
간다고 다영이도 신이 나서 "예~!" 환호하며 도착한 교회에서. 한결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덕분에 따뜻한 시간, 행복한 추억 하나 더하고 올 수 있었
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최미영 집사 / 하늘씨앗 영아부 김다영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

지난 1월 30일(토)부터 31일(주일)까지 <2021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민 15:41)”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민수기 말씀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신앙교육을 세우는 복되고 감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라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온 가족이 말씀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성경학교키트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교인이 민수기 성경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의 물결이 유소년숲에 흘러들고, 말씀으로 온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필사로 하나된 가족

가족이 함께 하는 ‘민수기 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유소년숲 아이들에게 다소 낯선 말씀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한글자 한글자 손으로 쓰는 모습에 모두가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막체험으로 하나된 가족

민수기는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대하게 합니다. 천막모양 ‘토퍼만들기’는 각 가정이 민수기 당시 성막 주변의 천막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성소로 선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가정에 발송된 ‘성막체험키트’로, 온 가족이 성막 모형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제공된 ‘성경학교 가이드북’으로 부모님이 성막과 그 기구들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신앙교사가 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집콕? 은혜콕!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된 가족

코로나19는 홈트문화, 집콕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놀이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전문놀이활동가가 준비한 영상으로 유튜브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발송된 재료를 통해 바람개비놀이, 빨대 로켓놀이, 통비행기 만들기 놀이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언택트 시대에도 유소년숲에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유소년숲위원장 장로님, 교육지원부, 각 부 부장님, 지도권사님, 그리고 기도로 성경학교키트를 함께 준비한 모든 선생님들, 부족한 준비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유소년숲 가정과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유년1부 이율리, 이안 어린이 어머니 : 겨울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
어제 오늘 아주 신나게 예배드 리고 여러 활동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



초등1부 강민아, 소년1부 강준 어린이 어머니 :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드라이브스루도 기대됩니다. 아이들이 1년만에 교회 가게 되어서 설렙니다!



초등2부 임수아 어린이 어머니 : 성막이랑 토퍼 만들었어요 ~^^ 만들기 좋아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눠보렵니다..^^



유년2부 오혜련, 소년2부 오인찬 어린이 어머니 : 온 가족이 말씀도 나누고 성막도 만들면서 뜻깊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예배 후에 레크리에이션까지, 알찬 시간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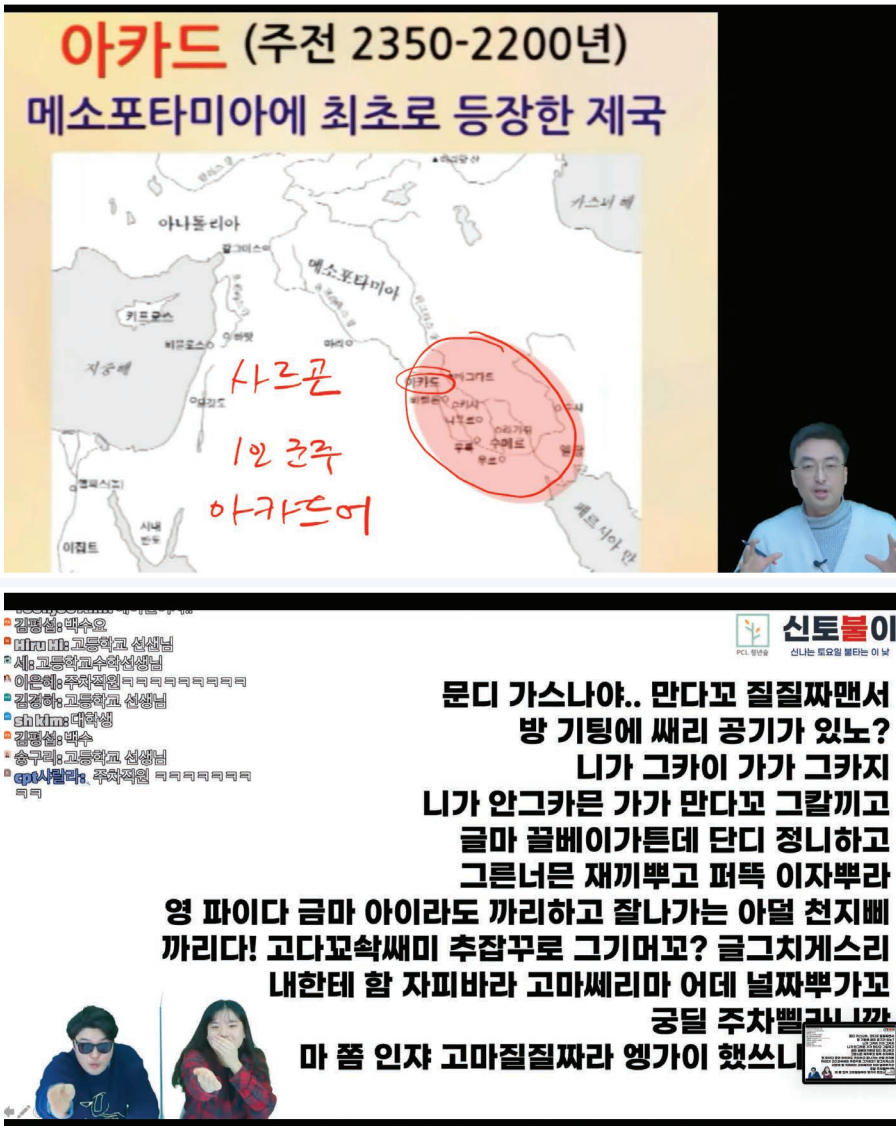


소년1부 김성웅 어린이 어머니 : 외할머니댁에 와서 예배드리고 토퍼 만들었어요. ^^ 저희 가족이 다 참여했습니다!



백 투 베이직

2021년 청년숲의 슬로건은 “아는 청년”입니다. 청년숲은 ‘하나님을, 예배를, 공동체를 아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해의 첫 사역인 겨울 온라인 수련회를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로 1월 29일(금)~1월 31일(주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위> 청년숲 <역사로 보는 모세오경> 강의

수련회 키트(교재, 성경통독표, 큐티책, 간식 등)

아래> 청년숲 신도불이 전체 모임(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청년숲 온라인 예배

소감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2021년 청년숲 온라인 겨울수련회는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침체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말씀, 예배, 모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전히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숲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단계마다 섬세하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매주 화상회의로 만나 뜨겁게 불태웠던 임원단 모임 때, 수련회 신청 명단을 보았을 때, 수련회 키트 발송&워크스루 명단을 정리할 때, 조원들이 새롭게 추가될 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마주하며 웃고 나눔 할 때, 청년들의 정성이 담긴 피드백을 받을 때……. 아니 사실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모양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었던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다음 수련회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실 / 청년숲

소감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느낀 시간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2021년의 초석을 잘 다질 수 있었습니다.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배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이후 많은 청년들이 겨자씨 단위로 모이고, 2박3일 동안 서로의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친교를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라인과 비대면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더욱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여 주신 교역자님들, 임원단, 부장단 그리고 우리 리더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우 분들께서도 현재 상황은 쉽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복된 초심(Basic)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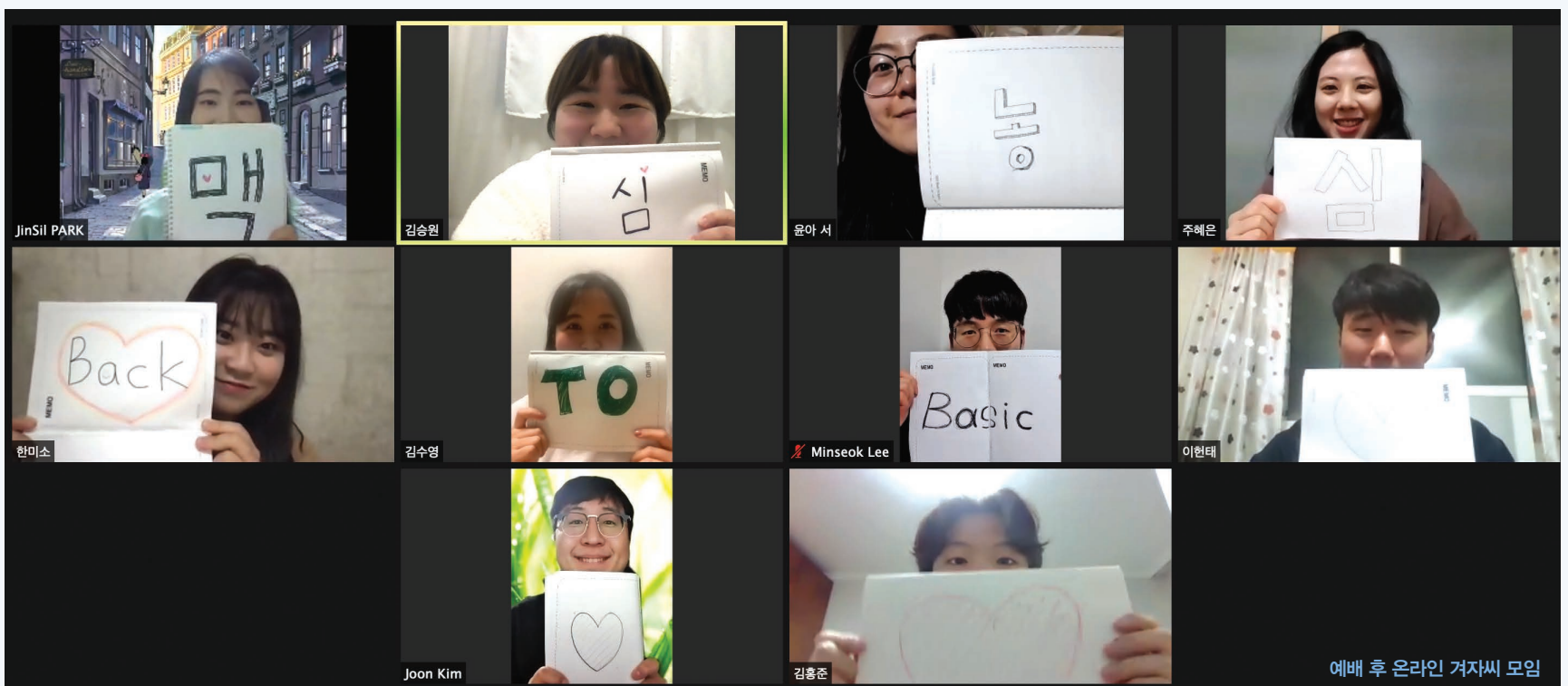
이경태 / 청년숲

소감

초심도 찾고 우심도 얻어

수련회 예배 때는 찬양을 스타트로 포문을 열어서 은혜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일타강사이신 정구민 목사님의 역사를 통한 성경말씀 강의를 통해 성경지식이 한층 더 늘어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모임을 통해 셀 조원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가고, 함께 줌을 통해 함께 웃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 서로의 고민과 기도제목들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셀조원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토불이(낮,밤)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낮에 했던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낮’시간에 정답은 다 알았으나 타자가 느려 좋은 상품들과 즐거운 게임들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ㅠㅠ. 다음 여름수련회 때에는 꼭 타자연습을 철저히 해서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밤에 했던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시간엔 일부 선배님들과 친구들만 참여했었지만 서로 마피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캐치마인드도 하며 수련회 마지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덕분에 초심도 찾았고 더하여 우심(우정심)까지 얻어서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수련회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름수련회도 많이많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ㅎㅎ

전예은 / 청년숲



당선자 시편

가을 산길에서

생의 마지막 한 때를
 가지에 매달려 있는
 초가을 붉은 단풍
 떨어져 밟히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흰서리 내리지 않았다
 양 팔 벌려 손 흔드는
 지천에 피어난 자잘한 무리꽃
 전 생애를 걸고 이룩해 낸 꽃밭 위로
 긴 터널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하얗게 웃을 시간 있다
 죽음 앞 병석에 누워 계신 구순 노모
 아직 총총하신 기억의 꽃밭
 제각각 지내던 자녀들 모여들어
 어머니의 지상 마지막 꽃밭
 함께 보듬어 안을 시간 우리 곁에 있다.

당선자 시편

시(詩)를 읽는 소리는

시(詩)를 읽는 소리는, 앞 못보는 주인과 함께 나와
 무대 위에서 기다리다
 스프르 옆드리고 마는 안내견의 숨소리
 시(詩)를 읽는 소리는, 아무 잘못 없으셔도 고개 숙이고
 남편과 자식만 앞세우던
 우리의 어머니, 당신들의 눈물소리
 시(詩)를 읽는 소리는, 어린 손자 대신해서 둘러 멘
 노란 책가방 위로
 낙엽 한 잎이 내려 앉는 소리
 시(詩)를 읽는 소리는, 해가 뜰 때
 올려다 본 그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숨겨진 그림이 드러나는 소리
 시(詩)를 읽는 소리는, 기차가 좀처럼 오지 않는
 시골 마을 대합실 밖에
 밤새도록 송이눈 쌓이는 소리.

당선소감

피와 물을 쏟으시며 지켜주시는 사랑



수상을 기회로 막연한 사이였던 ‘시’가 절친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라는 제한된 울타리를 강제로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늦은 가을 동네 산길에, 작은 얼굴의 들국화가 군락을 이루고 퍼 있었습니다. 곧 서리가 내릴 즈음인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펼쳐내던 그 모습에, 죽음 앞 병석에 누워 계신 구순 노모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지켜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을 통해 알아가는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한 작품에 공감해 주시고,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중 권사

심사평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수작

이번 함줄함울 신춘문예의 응모자는 모두 10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에 널리 알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한 응모자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응모 편수나 원고량과 같은 응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중 시 부문은 대부분 응모요건을 갖추어, 모두 본심에 올랐다. 본심은 현역 문인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하고 <곰곰>, <이별의 재구성>, <사랑은 어느날 수리된다> 등의 시집을 냈으며 신동엽창작상을 받은 안현미 시인이 맡았다. 당선작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는 신인 발굴의 등용문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잡지사나 신문사에서는 신춘문예나 문예지 추천과 같은 등단 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람들만 문인으로 인정하고 지면을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차 디지털 공간에서 글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글의 수준과 관계없이 글의 조회수가 많으면 책으로 묶어 퍼내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마치 작가 자격증과도 같았던 ‘신춘문예’의 고유한 가치는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신춘문예는 작가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작가임을 인정하고 싶어서 존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함줄함울 신춘문예는 당선자들에게 드릴 것이 없다. 상금도 없다. 작가로 인정해 드릴 수도 없다. 함줄함울 신춘문예에서 당선한 이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격려와 조언 뿐이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의 글쓰기에 대해 자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진정한 글쓰기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 보는 작은 돋보기일 수 있음을 깨닫기를, 그 돋보기를 늘 깨끗이 닦아 투명도를 유지하는 것은 글쓰는 이들에게 평생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함줄함울

목회 칼럼

우연과 찰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깊다.
 여러 날 잠을 설치고 깊어진 눈에 하늘을 담고 싶어 블라인드를 걷어내니
 한 쪽 볼을 감춘 달이 뽀얀 얼굴로 내려다본다.
 “너 거기 있었던 거야??”
 왈칵 마음이 쏟아진다.
 먼발치에 서서 그렇게 다 보고 있었구나.
 말갭게 전해져 오는 너의 위로가 따스하다.

내가 좁은 시야로 내 앞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너는 거기 있었을 테지.
 사람 사이의 일로 너무 마음 쏠리지 말라고,
 우주가 넓고 그곳에 수많은 별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속삭였을 테지.
 나는 이제야 알았구나.
 네 말간 얼굴이 그분의 눈동자인 것을...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때로 만나는 고난을 그저 홀로 감당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가
 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낮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우연과 찰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도 약속을 향해 가는 은혜의 꽃길일 것입니다.

이은미 전도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앙코르 연재)

예배, 예식용어 편 10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X),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O)

설교를 할 때 흔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이가 그 동사 ‘사랑하시는’의 주체가 될 때에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말하는 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존대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도, 그 ‘사랑하시는’
 이란 동사의 주체를 말하는 이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즉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의미는 흔히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말하는 이(화자)인 것이 분명하다. 만일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야 분명하다.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X),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O)

“다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예배시에
 성도들은 결코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는(외우는) 것, 즉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뜻을 바로 새기면서 음송(吟誦)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표현은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경우로서 옳지 않다. 즉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표현이나 “사도신경을 외운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진지하게 뜻을 생각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리내어 외는
 행위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2021봄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태복음 13:31



2.26(금) 7:00PM

• **특강** | 장순애 교수 "코로나 시대, 가족이 신앙교사인 겨자씨"

• **방식** | 온라인 수련회영상 시청 참여

• **온라인 인도자 모임** | 2.23(화)~26(금) 각 교구별 주중 실시

• 보내드린 겨자씨인도자용 워크북을 참고하세요.
•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 인도자 및 권할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일정

2/21(주일)	사순절1
2/26(금)	겨자씨인도자수련회
2/28(주일)	사순절2

알립니다

1. 2021년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일시 : 2/26(금) 오후7시(온라인 유튜브방송)

대상 :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인도자

특강 : 장순애 교수(영남신학대학교)

소그룹미팅 : 2/23(화)~26(금) 교구별(온라인)

2. 청소년 겨울 온라인수련회

주제 :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

일시 : 2/21(주일) ~ 2/28(주일)

진행 : ① 주일 온라인 특별예배

② 6가지 영역 도전 과제(기부금적립)

③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

④ 여수지역교회 청소년과 함께

문의 : 중등부 - 최혜원 전도사(010.4405.8580)

고등부 - 조영찬 전도사(010.9442.6708)

3. 아름다운 부모학교 제3기 모집

대상 :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 예비 부모

교육기간 : 3/18(목) ~ 5/20(목) 10주, 오후 8~10시

교육방법 : 온라인(ZOOM) / 등록비 : 1.5만원(교재비)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홈페이지 모집 안내문 내 링크)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4.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제1기 모집

대상 :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의 다양한 관계를

성숙하게 세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교육기간 : 3/23(화)~5/25(화) 10주, 오후 8~10시

교육방법 : 온라인(ZOOM) / 등록비 : 1.5만원(교재비)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홈페이지 모집 안내문 내 링크)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모집

2021년 3월 18일~6월 3일 매주 목요일

대 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30,000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본인부담 50,000원)

특 전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등록문의 김영미 부장 010-5356-9473
홍정미 총무 010-6482-2572